

유미주의자의 글쓰기와 여성 하위주체들의 욕망

-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김은하*

차례

1. 머리말
2. 아버지의 법-언어에 대한 회의와 감각의 발견
3. 의복의 성 정치와 사치의 권력
4. 관능적 섹슈얼리티와 “애브노멀”한 충동의 미학
5. 결론을 대신하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방과 전후로 이어지는 국가재건의 과정 속에서 감각화된 여성 주체의 등장에 주목해 강신재 초기 소설의 유미주의적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강신재 소설이 주류문단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수직적인 초월, 도덕적인 초월”(김현)을 거부하는 여성의 욕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이렇듯 윤리, 법, 규범, 이념 등 상징계 질서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이성보다는 감각을 중시하는 글쓰기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녀의 소설적 페르소나 들은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 사물의 미추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미주의자들이다. 유미주의는 삶을 정열적으로 경험하려는 것인데, 이렇듯 삶에 대한 열정적 추구는 사물의 판단의 심급이 바로 자기, 즉 감각하는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기에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욕망을 옹호하거나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미주의자는 오만한 쾌락주의자의 형상을 띠며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강사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퇴폐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강신재의 감각적인 혹은 감각을 신뢰하는 둔 글쓰기는 서구화, 근대화와 함께 새로운 감각이 유입되고 이에 대한 매혹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포가 등장한 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결코 반시대적이거나 비현실적이지 않다. 해방과 전후로 이어지는 격변의 역사 속에서 출현한 감각적이고 소비주의적인 문화와 도시문화의 발흥, 그리고 이에 대한 전후 한국사회의 공포와 두려움이 여성-감각을 매개로 표출되는 지점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혼란에 대한 공포가 조화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방인, 괴물, 즉 타자로 표상되는 집단이 양공주, 미망인, 도시 여성 등 여성화 위주체들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50년대의 성의 정치, 즉 하위주체 여성의 몸이 전통과 서구, 식민과 탈식민의 정치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지점을 엿볼 수 있다.

핵심어: 유태주의자, 감각, 여성, 치장, 의복, 소비와 허영, 근대적 주체

1. 머리말

본 연구는 해방과 전후로 이어지는 국가재건의 과정 속에서 감각화된 여성주체의 등장에 주목해 강신재 초기 단편에 나타난 유태주의적 글쓰기의 의미를 규명하겠다.¹⁾ 강신재는 50년대 가부장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넘어서는 여성의 욕망을 말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각’을 내세운다. 그런데 이때의 감각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감응 능력을 의미하지

1) 이 글에서는 강신재의 초기 창작집 『희화』 『여정』을 중심으로 하되, 60년의 몇몇 단편 등 초기 단편소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강신재는 49년 등단초기에 단편 창작에 주력했고,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중반의 시기에 단편만이 아니라 신문잡지에 장편연재를 곁들였다. 그러나 60년대 중반이후 단편보다 여러 편의 일간지와 여성잡지에 문제적인 대중소설을 발표하면서 장편작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해갔다.

않는다. 동정의 윤리학, 타자에 대한 배려, 모성의 가치 등은 강신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그녀는 감각을 근대적 주체의 한 면모 혹은 자질로 발견하는 한편 식욕과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능, 특히 여성들의 관능적 감각에 집중해 여성이 열정이 없고 수동적이며 보수적이라는 지배적인 견해를 거부하면서 여성을 의기충전한 근대적 주체로 제시한다. 여성 인물들의 미묘한 도착적 열정은 의학적, 성의학적, 정신분석학적 담론에 침투한 기존의 여성성의 교의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것에 도전한다. 욕망하는 여성들이나 이기적인 악녀들을 내세워 여성과 성욕에 관한 지배적인 기술에 도전하는 것이다.²⁾ 서구화-근대화와 함께 새로운 감각의 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매혹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커진 해방 후의 사회적 분위기가 암시되는 한편으로 하위주체-여성의 욕망이 유희주의적 상상력으로 드러난다.

강신재는 김동리의 추천으로 『문예』(49년)지에 「얼굴」 「정순이」를 발표해 데뷔한 이래 78세(2001)로 영면하기까지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했지만 군소 “여류작가” 집단으로 묶여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³⁾ 이는 작가가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주로 신문이나 잡지에 장편을, 90년대에는 장편역사소설을 쓰는 등 대중성 강한 작품을 발표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지만 초기작에 대한 평단의 몰이해에 그 원인이 있다. 강신재는 창작집 『희화』(계몽사, 1958년)와 『여정』(중앙문화사, 1959년)을 발간한 후, 여성작가들이 빼어난 구성미와 절제미가 필요한 단편에는 미숙한 데 비해 문학적 역량을 갖춘 희소한 여류작가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비누냄새의 작가”(천이두), “감각어에 대한 날카로운 감수성”(염무

2) 리타 켈스키 지음, 김영찬·심진경 지음,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311쪽.

3) 강신재는 대략 중단편 71편 장편 32편 이상의 많은 작품을 발표했고 독특한 개성의 문체적인 작품을 상당수 발표했지만, 초기 창작집 몇 권을 제외한 중 후기작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의 스펙트럼 역시 다양하지 않다.

웅), “감정의 점묘화기”(김현)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감각적이고도 서정적인 글쓰기 미학을 세련되게 소화한 스타일리스트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이렇듯 감각적 글쓰기는 “가장 여유다운 여유”의 특질로 규정되거나 탐미주의와 인상주의에 빠져 인간의 진실을 발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의 준거로 작용했다. 평단은 “역사나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이나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인식적 노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직 무리한 일”⁴⁾이라고 함으로써 강신재 문학을 사회문화적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가정하고 주변화했다.⁵⁾

이러한 평가는, 비록 여성들의 글쓰기에 대한 편견에 가득찼다는 한계는 명확하지만, 강신재 문학의 특징을 예리하게 파악한 것임은 분명하다. 염무웅은 “인생의 어떤 국면, 감정의 어떤 뉘앙스, 현실의 어떤 단면을 하나의 독자적인 형상으로 조형할 때 그녀의 작품은 탄생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강신재 문학의 특징으로 묘사 대상과의 거리두기에서 오는 지적 세련미를 들었다. 이러한 해석은 강신재 문학의 조형성, 즉 사실적, 객관적이기보다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특징에 주목하게 한다. 김현의 글은 이러한 미적 거리두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심장한 해석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강신재를 “감정의 점묘화기”라 칭하면서 작가의

4) 염무웅, 『팬터마임의 미학-강신재론』, 『한국대표문예작가전집』, 1978, 서울출판사, 386쪽.

5) 김복순은 강신재 문학에 대한 기존 평론의 남성중심성이 감수성-감각을 이성적 사고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치부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감각의 글쓰기는 “남성적 리얼리티, 남성중심적 객관성에 불과했던 인식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감각은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이 아니”며, “감각은 사실을 파악하는 준거이며, 인물들을 살아움직이게 하는 원리” “인물들이 세계와 소통하는 틀”(289쪽)이자 “합리적 이성과 차가운 지성에 의해 구축된 현대 문명의 두터운 외피를 본능과 관능, 원시적 생명의 비합리적 충동으로 돌파”(290쪽)하려는 시도로 보는 등 감각적 글쓰기를 여성주의 인식론, 여성들의 전복적인 글쓰기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로 논의하고 있다. 김복순, 『감각적 인식과 리얼리티의 문제-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장편 『파도』(『현대문학』 연재, 1963)가 “다만 현상만이 있고 수직적인 초월, 도덕적인 초월이 거의 불가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평화로운 조화의 세계”⁶⁾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조화의 감각을 기실 미성숙의 증거로 규정한다. 김현의 해석에 따르면 『파도』는 근대적 소설의 전형, 즉 세계와의 불화를 견디며 파편화된 현실을 종합해 초월적 자기주체를 구축해 가는 인물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데 실패한 작품이다. 성장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사식의 주체인 영실은 “그녀 자신이 아직은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강신재의 인물들은 성별, 선악, 미추의 굳건한 경계 위에 자아를 구축하는 대신 이 경계를 넘나드는 유동적이고 모호하고 다성적인 주체들이다.

본고는 강신재 소설이 주류문단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수직적인 초월, 도덕적인 초월”을 거부하는 여성의 욕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이렇듯 윤리, 법, 규범, 이념 등 상징계 질서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이성보다는 감각을 중시하는 글쓰기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강신재는 작중인물이 어떠하다고 설명하기보다 “그에게서는 비누냄새가 난다”(『젊은 느티나무』)라고 말하는 작가이며 그녀의 여주인공은 국경을 넘어가서라도 의붓오빠와의 사랑을 완성하려고 할만큼 발칙하다. 이렇듯 이데올로기나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 사물의 미추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강신재의 소설적 페르소나들은 유미주의자들이다. 유미주의(aestheticism)란 말 그대로 “널리 아름다움에 대한 신앙” 혹은 “아름다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태도”, 더 나아가 예술작품 속에서라든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매력있는 것들 속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

6) 김 현, 「감정의 점묘화가」, 『파도/임진강의 민들레』(강신재대표작전집 2), 삼익출판사, 1974, 412쪽.

로서 나아가 “아름다움을 다른 가치들과 비교하다든가 심지어는 상치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새로이 신봉하는 것까지”⁷⁾의미한다. 이러한 정의가 암시하듯이 유티주의는 단순히 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적 가치를 극단적으로 밀고나간다는 점, 즉 인간의 다른 어떤 가치와 비교하여 미적 가치가 절대적으로 우월할 뿐 아니라 다른 가치들과 서로 첨예하게 주장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아름다운 것에 대한 본능적 추구하고 구분된다.⁸⁾ 그런데 유티주의자는 아름다움을 신봉함으로써 현실세계와 단절된 미의 낙원 속에 거주하며 세상과 담을 쌓은 이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통해 뭔가와 대결하는 혹은 주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티주의는 삶을 정열적으로 경험하려는 것인데, 이렇듯 삶에 대한 열정적 추구는 사물의 판단의 심급이 바로 자기, 즉 감각하는 자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기에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욕망을 옹호하거나 주장하게 되며, 이는 체제를 위반하는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티주의자는 오만한 쾌락주의자로 받아들여지거나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퇴폐적인 욕망의 소유자로 규정된다.

강신재의 감각적인 혹은 감각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작품들은 서구화, 근대화와 함께 새로운 감각이 유입되고, 이에 대한 매혹과 공포가 공존한 사회적 분위기, 즉 해방과 전후 사회의 현실에 대한 반응 혹은 미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결코 반시대적이거나 비현실적이지 않다.

7) R.V.Johnson 저, 이상욱 역, 『심미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1979, 7쪽.

8)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경험이란, 실재나 공리성이나 도덕성과 같은 ‘외적’ 목적에 관계없이 오직 대상에 대한 ‘사심없는’ 관조에서만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목적론적 판단과 심미적 판단을 서로 구별하는 그는 후자에서 얻는 지식은 논리적 추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전자의 지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목적론적 판단은 대상과 그 대상의 목적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념이나 범주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심미적 판단은 외부의 목적과 대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김옥동, 『아름다움의 종교: 유티주의의 개념과 본질』, 『서강인문논총』 제5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178~183쪽.

강신재는 해방과 전후 격변의 역사 속에서 출현한 감각적이고 소비주의적인 문화와 도시문화의 발흥, 그리고 이에 대한 전후 한국사회의 공포와 두려움이 여성-감각을 매개로 표출되는 지점을 포착하고 있다. 해방 후 냉전체제의 부산물인 미국화와 취약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기반은 전쟁을 거쳐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미군부대와 미국의 경제적 원조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미국의 대중문화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렇듯 해방과 전란 후 전쟁의 상처를 수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가운데 사생활, 상품과 소비문화, 도시, 영화, 연애, 섹슈얼리티 등 근대적 감각이 불러일으키는 매혹과 두려움이 커진다. 특히 사회적 혼란에 대한 공포는 조화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방인, 괴물, 즉 타자로 표상되는 집단이 양공주, 미망인, 도시 여성 등 여성하위주체들이다. “근대로의 이행은 단일한 일률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지역과 계급, 성과 세대 등에 따른 불균형과 불평등, 억압과 지체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일련의 경험의 연속”⁹⁾인데, 강신재의 소설은 50년대의 성의 정치, 즉 하위주체 여성의 몸이 전통과 서구, 식민과 탈식민의 정치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지점을 포착하고 있다.

강신재는 50년대라는 새로운 감각의 황홀경과 그러한 감각에 대한 매혹과 공포가 투사되는 상징적 장으로 여성 혹은 여성성을 포착하고, 유미주의자답게 섹슈얼리티나 관능, 사랑과 성욕에 관한 문제를 윤리의 측면이 아니라 미추의 문제로 접근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유미주의자는 감각에 의존해 사물의 미추를 판단하는데, 감각은 무질서하고 본능적이라는 점에서 저급하고 무질서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억눌린 ‘이성’의 외부

9) 김정일, 『1950년대의 일상생활과 근대성, 전통』,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174쪽.

이기에 해방적 감수성이자, 사회적 규범 혹은 말씀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내파하기 전복적인 힘도 지닌다. 무엇보다 감각은 주류 문화에서 금지하는 욕망이나 기피한 대상에 대한 도착, 문화의 고도화 과정에서 억압된 것들이 회귀한 것이다. 감각은 타자가 낮설고 두려운 이방인, 혐오스러운 괴물, 기피한 방문자로 표상되곤 하듯이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추방되어버렸다. 프로이트의 통찰을 빌리자면, 기피함은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실 오랫동안 잘 알고 있던 익숙한 것들에 대한 섬뜩한 느낌이다. 즉, 괴물이 두려운 것은 그것이 주류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나의 욕망을 가시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괴물은 혐오스러우면서 동시에 매혹적인 존재이다.

다른 한편으로 감각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눌려 왔던 여성들, 특히 하위주체 여성들의 욕망을 담아낸다. 대개 이성과 감각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젠더적 자질로 결부되어왔기 때문에 우월한 이성과 열등한 감각이라는 위계화된 이분법이 호소력을 얻어왔다. 또한 이성이 감각보다 우월한 까닭은 감각적 판단이 신체를 매개로 한 사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감각은 물질적 대상과 몸이 자극과 감응의 관계로 만나는 것, 감성이나 감정은 감각과 느낌에 기초한 정서를 아울러 가리키기에 육체에 지배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짐멜은 '시선'에 대한 믿음은 바로 자신의 사유 방식에 대한 믿음인 셈이라고 함으로써 오감에 근거한 판단이 근대적인 주체의 특징임을 강조한다. 이는 감각을 열등성, 수동성, 반이성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강신제는 50년대 현실의 무의식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기보다 허구적이고 미학적으로 포착한다. 한국 전쟁 이후 국가재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여성 현실의 세부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반역적이고도 환타스틱한 상상력을 미적으로 가공해 전시함으로써 남성 멜로드라마를 넘어선 50년대 여성문학의 입지를 구축해간다.

2. 아버지의 법-언어에 대한 회의와 감각의 발견

강신재의 주인공들은 관념을 통한 추상적 삶보다 감각을 통한 구체적 삶을 중시하는 유태주의자이다. 심미적(aesthetic) 혹은 유태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비심미적(unaesthetic)이 아니라, 무감각이나 둔감함(anesthetic)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태주의는 실체적인 것, 곧 감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¹⁰⁾ 그것은 속물적 중산층들의 부르주아적 취미 혹은 과시적 취향의 문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공리성이나 도덕성과 같은 ‘외적’ 목적에 관계없이 오직 대상에 대한 ‘사심없는’ 향유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탈규범적, 탈세속적이다. 특히 여성 유태주의자들은 가부장적인 전통이나 종교 속에서 형성된 이타적이고 비성적인 여성성 혹은 여성적인 것의 규범에 맞서 자신의 감각, 특히 육체와 성 등 구체적이고 본능적인 감각들을 무한히 신뢰한다. 등단 초기 발표된 일련의 단편들은 감각의 발견에 담긴 여성주의적 의미를 엿보게 한다. 여러 편의 단편들이 규범적인 여성성이 구축되는 문화적 사회적 장소인 근대적 중산층 가정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과 히스테릭한 파괴적 욕망을 은밀히 드러낸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데뷔작 『얼굴』(『문예』 50.9)을 포함해 『병아리』(『부인경향』 50.6) 『눈이 나린 날』(『문예』 50.1) 『안개』(『문예』 50.6) 등은 국가 재건의 과정에서 여성들을 동요시킨 해방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근대적 가정 내 여성의 소외 경험을 통해 담아낸다. 해방 후 국가재건 사업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가족(가정), 남녀 관계나 여성성의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단독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미군정 점령의 최우선 목표는 “남

10) 김육동의 앞의 글, 185쪽.

한에 있어서 해체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과 자본주의 국가의 건설”이었다. 이에 미군정은 ‘민주주의 질서의 확립’이라는 원칙하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을 만들어 나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자본주의적 재현을 도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녀평등권의 실현문제는 민주질서 확립의 주요한 척도로 여겨졌다. 부녀국의 설치와 공창제 폐지, 여성 참정권, 교육정책 등이 마련됨으로써 여성의 삶의 조건은 크게 변하였다. 더불어 새국가 건설의 분위기와 급속한 새로운 문화의 유입 등으로 새로운 여성상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녀 관계, 연애와 결혼에 대한 다시 쓰기가 시작된다. 특히 자유연애는 전통적인 가족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축첩, 공사창제를 없애는 등 가정문제해결의 기대를 안게 된다.¹¹⁾ 의사소통하는 부부, 친밀성 영역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성 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열광적 기대를 자아낸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근대적 가정은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자 개인의 열렬한 소망의 등가물이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대적 여성성의 자질이 재구성된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데뷔작 『얼굴』(『문예』 49.9)에서 경옥여사가 자신에게 구애해 오는 화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암시된다.

“그렇게 말씀 드렸건만 또 보내셨지요? 최후로 저의 연애관이나 아시고 싶다고요? 진정 마지막이니 그럼 말씀 드리지요. 저는 -아니 저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자. 우선 이것이 저이들이 생존하는 의의 이지요. 저의 애인이고 지도자인 K씨는 이 고귀한 사명을 위하여 분투합니다.

저는 그 투사의 협력자이고 위안자이예요. 제가 있는 곳은 즉 그의 오아

11) 이배용,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모와 여성의식: 1945~1948』, 『역사학보』 150, 역사학회, 159~214쪽.

시스 지요. 그리고 또 그이는 저 라는 여성 속에서 모든 미와 덕을 발견하고 저를 통해서 인류를 사랑할수 있다고 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결해야 하지요. 이 쓰러기통 같은 세상에서 학(鶴)과 같이 깨끗하고 백합같이 향기로워야지요. 저이는 곧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이가 돌아가시는 날 저도 이세상에 머물르지 않겠습니다……”(『회화』, 212~3쪽)

얼핏 이 작품은 남편의 이상적인 협력자가 되기 위해 헌신해온 경옥 여사의 우매함을 풍자하고 있는 듯 보인다. 경옥 여사의 굳건한 믿음은 남편의 장례식장에 그의 불륜의 애인이 등장하면서 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실 풍자 혹은 조롱의 대상은 경옥 여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들자”던 그녀의 “애인이고 지도자인 K”가 부여한 “고귀한 사명”이자 가부장제의 이름으로 언명된 이상적 여성상이다. K씨의 애인의 등장으로 “고귀한 말씀”은 거짓 혹은 위선으로 전락하고 만다. 경옥여사는 남편의 순장품이 되고자 했지만, 결혼의 비밀이 폭로된 순간 매장되는 것은 사랑의 신화 혹은 가부장제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장례는 가부장제의 장례식이 된다. 이렇듯 강신제의 초기 소설에서는 가부장제의 문자-진리-말씀에 대한 환멸이 엿보인다. 금욕주의적 순결미로 남편의 사업을 수행해온 경옥 여사는 결국 남편의 장례 후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산다. 커다란 양옥 집 문을 닫아 걸고 고양이 한 마리와 칩거하는 경옥여사의 생활은 화자의 말마따나 “변태적”이라고 할만하다. 순결한 백합에 비유되리만큼 아름다웠던 경옥 여사는 무명웃, 히끗한 머리, 고립된 생활, 검정테 안경 너머의 험악한 표정 등의 표현에서 엿보이듯이 우울증과 히스테리의 징후를 잔뜩 풍긴다.

다른 한편으로 가부장제는 여성들이 언어를 갖는 것, 그것을 표현해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왜곡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 즉, 그녀들은 가부장제의 언어-율법의 희생자이며 자신들의 욕망을 담아낼

언어를 허락받지 못한 소외된 존재이다. 『병아리』 『눈이 나린 날』 『안개』는 각각 화가, 성악가, 소설가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들의 창작활동이 좌절, 금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병아리』와 『안개』는 각각 그림, 문학을 함께 전공하는 부부의 갈등을 문제 삼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성의 불평등 문제를 초점화한다. 화가인 관옥은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그리고 늘 열정에 넘치는 남편과 달리 양육 노동에 짓눌린 채 그림을 그리면서도 아이들을 유기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병아리』), 성악을 전공하는 영숙은 전도가 양양한 청년인 남편과 달리 시가의 추운 방에서 양말을 기우며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를 새삼 깨닫는다(『눈이 나린 날』).

이렇듯 그림 혹은 음악 등 자기 표현의 언어를 박탈당했기에 이들은 현실을 위조하거나 침묵 혹은 비명을 삼킨다. 자기 표현이 좌절된 현실에서 웃음, 침묵, 비명 등이 여성의 언어로 등장한다. 『병아리』의 관옥은 그림을 그리는 대신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애써 행복한 미소를 짓는데, 그 웃음의 의미를 관옥 자신도 알 수 없다는 서술이 암시하듯 그것은 위장된 웃음이다. 『눈이 나린 날』의 영숙 역시 친구들의 리사이틀 소식을 듣고 무대에 설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을 발견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여자의 행복은 남자를 출세시키는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침묵할 뿐이다. 『안개』(『문예』 50.6)의 소설가 성혜는 소설을 써서 기쁘지만 삼류문인인 남편의 질투에 시달릴까 두렵다. 그녀는 “싫어! 소설도, 공부도, 남편도, 사는것도 다 싫어! 싫어!”라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마음속에 웨”(263쪽)칠 뿐이다. 이렇듯 가장된 순응 혹은 연기하는 여성성은 가부장제와의 타협이 아니라 불화 혹은 대결의 징후로 해석되어야 한다.

감각은 가부장제의 법 안에서 주체로서의 언어적 권능을 부여받지 못한 여성들이 아버지의 법을 거스르고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대리 언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양관』¹²⁾(『자유문학』 61.2)은 아버지의 율법 속에서 몰락해 가는 여성인물을 통해 중산층 가정-아버지의 법에 대한 도

발적인 상상력을 보여줌으로써 감각-육체의 발견의 의미를 엿보게 한다. 주인공인 유진과 유선 자매는 “거무죽죽한 벽들의 묵직한 조화를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과시하려는 듯한 위엄을 갖춘” 양관에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몰골없”이 차츰차츰 몰락해 가고 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후 이혼한 유진은 세상과의 소통 욕망을 잃었으며, 과부인 유선은 세상과의 간절한 교신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에 걸린 채 마치 유령처럼 거대한 아버지의 주택 속에 기거한다. 이들의 고립되고 수동적이며 죽음을 연상시키리만큼 무력한 삶은 가부장제 진리의 억압성을 전시한다. 특히, 가부장제 혹은 아버지의 법의 억압성과 허위가 ‘양관’으로 상징화된다. 한때 위엄 있고 아름다웠을 ‘양관’은 기실 그녀들의 보호처가 아니라 감금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이들은 “흙 묻은 고무신으로 대리석 바닥이고 양탄자 위고 밟고 다니며” 집의 몰락 혹은 자신들의 몰락을 재촉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법의 허위를 조롱한다.

“유진은 눈을 들고 부친의 서재계를 바라보았다.

침침한 형광 조각에 가리워 지금은 열리는 일도 없는 그 창문 안은 전에는 훈훈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무언가 신비스럽기까지 한 장소였었다. 그 신비스러움은 삼면의 벽을 거의 메운 장서(藏書)들의 금빛 글자-인도주의적인 이상주의적인 또는 낭만적인, 세계의 두뇌의 산물들에 의하여 뽑어내지는 광채 때문에 그랬었는지 알 수 없었다. 혹은 그곳에 생활하며 끝까지 인생을 신뢰한 부친의 탓이었을지 몰랐다. 유진에게 책을 읽히고 그리고 인간의 성실함이란 것을 믿도록 만든 것은 여하간 그 사람이었다.

반발과 어느 만큼의 증오를 눈에 담고 유진은 그곳을 응시하였다. 자기에게 그같은 <교육>을 안하였던들, 확실히 하나의 왜곡(歪曲)이 틀림없는-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에서-그런 신앙을 부여하지 않았던들, 자기를 자연아(自然兒)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들, 어쩌면 이런 세계에서라

12) 강신재, 『단편선집』(강신재 문학전집 1), 삼익출판사, 1974.

도 살아나갈 힘이 남겨졌을지 모를 일 아닌가. 가엾은 유선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만 가르친 것은 부친의 <죄>가 아니었을까?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남을 믿기보다, 스스로의 감성(感性)을 조절하는 기술이 먼저 필요하였었다. 혹은 그보다도 사람은 악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가르쳤어야 하지 않았을까”(『양관』, 275쪽)

유진은 딸들의 개체적 감각을 봉쇄한 아버지의 교육-말씀이 결국 딸들의 삶을 훼손했다고 여긴다. 유진은 남편이 혼외정사를 해 자식까지 두었다는 것을 알고 남편과 이혼했는데, 그의 외도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유진에 대한 태도는 성실했으며, 분명히 아내를 열애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고귀한 가부장제의 이념에 붙들린 탓에 배신의 상처만 안게 되었다고 여긴다. 여기서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강신재가 감정을 이성보다 우월한 판단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유진은 아버지의 집-양관에서 전기공의 겁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스스로를 훼손한다. 전기공은 “이따위 집은 내버리구 차라리 셋방엘 나가서라도 생활이라는 걸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281쪽)라고 충고하지만, 유진은 “이 젊은 남자는 무엇에 대체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인가?”라며 그를 바라볼 뿐이다. 유진이 양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법에 저항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강신재 소설이 아버지의 언어-말씀-진리를 회의하고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신재의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 혹은 관능을 토로해 낼 언어를 찾지 못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데뷔작 『정순이』에서 정순이는 B에게 구애의 편지를 받은 후 사랑의 감정에 눈을 떴고, 쓰고 불살라 버리기를 반복하면서도 “회답을 쓰고 싶다는 뜨거운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사모한 줄 알았던 B가 동생 정옥의 애인이 되었음

을 알게 되면서 편지는 끝내 완성되지 못한다. 양보하고 희생하며 타인의 감정을 더 고려하도록 길러져 온 구식여자 정순이에게 욕망의 표현과 충족은 불허된다. 정순이는 자신이 아끼던 ‘담홍색 블라우스’를 동생에게 주어버린다. 정순이가 여동생에게 빨간 블라우스를 건네는 행위는 “인고의 여성상을 표현해냈다”¹³⁾기보다, 즉 겸손이나 양보가 아니라 관능을 은폐하는 전략으로 해석해야 한다. 강신재는 특유의 감각적인 문체로, 움튼 관능을 새빨간 ‘석류나무 열매’로 표상한다. 외롭게 매달린 석류 열매는 정순이의 은닉된 욕망을 암시하는 객관적 상관물, 언어로 표현될 수 없었던 관능적 욕망의 표상이다. 이렇듯 관능의 감각은 오롯이 살아 그녀의 욕망을 주장한다. 감각은 말씀과 규범의 그물을 찢고 여성의 욕망의 징후를 드러낸다. 이는 그녀들이 “나쁜 여자”가 될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작품이 강신재의 데뷔작이라는 것은 매우 암시적이다.

3. 의복의 성 정치와 사치의 권력

강신재의 여성인물들은 의복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주거나 사치스러운 치장을 즐기는 멋쟁이다. “숙히는 바이오렛 빛 완피이스 자락을 나부끼면서 가볍게 아스팔트 위로 뛰어 내렸다”(『바이바리 코오트』, 267쪽), “바이오렛 빛 스으츠를 입은 민영이가 검은 장갑을 낀 손에 파란 눈동자의 갓난애를 안은 모습은 짝은 조금 우습기도 하였다.”(『감상지대』, 251쪽)는 서술이 암시하듯이 등장인물들의 행동, 심리, 환경은 늘 의복에 대한 묘사를 동반한다. 강신재 소설에서 의복이 이처럼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까닭은 시대적 상황 탓이다. 해방이후부터 1960년대 초 한국

13) 김주연, 『강신재론』, 『단편선집』(강신재 문학전집 1), 삼익출판사, 1974.

사회에서 의복과 여성은 중요한 쟁점이었다. 의복사치, 한복개량, 간소복 문제, 양장 등은 연일 신문과 잡지에 실릴만큼 뜨거운 화제였다. 김수진에 따르면 여성의 의복은 전통과 근대, 민족과 외래라는 정체성의 정치가 여성을 대상으로 경합하는 상징투쟁의 장이었다. 의복 담론은 식민지기와 달리 의복 개량 또는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식민 당국이 아닌 탈식민 국가가 등장했으며, 그리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동원의 담론으로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장을 걸친 “양공주”와 긴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염집’ 여성들이 사치의 두 주인공으로 지목되었다. 당시 한복은 점차로 일상복이 아닌 의례복으로 전환해 갔는데, 이는 한복의 전통미가 뛰어나지만 비실용적이라는 한계가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50년대 호황을 누렸던 양장은 고급 옷으로서의 성격과 성적-육체적 타락과 방종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사치비 판론은 해방 직후 양공주, 유엔마담에 집중되었던 양풍, 양키 문화에 대한 비판보다도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 캠페인성 반대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나아가 61년 재건국민운동 시기에 이르기까지 생활개선 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¹⁴⁾

강신재의 소설은 여성의 의복을 둘러싼 성별의 문화정치학에 맞서 여성들의 의복 치장을 여성적 자의식, 즉 냉소적이고 도발적인 여성들의 주체성 찾기의 일환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여성의 치장-육체가 가부장적 권력의 상징적 장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재현의 전략이다. 그녀들은 서구적인 의복을 입고 있지만 처벌받지 않으며, “양공주”로 규정당할지라도 스스로를 반성하기보다 타인의 시선을 비웃어준다. 양장을 근대-서구에 대한 동경의 암시 혹은 식민지인의 서구 콤플렉스로 규정하는

14) 김수진, 『여성의복의 변천을 통해 본 전통과 근대의 젠더정치』, 『페미니즘연구』 제7권 2호(2007년 가을), (사)한국여성연구소, 2007. 여성의복을 둘러싼 논의는 김수진의 논문을 참고할 것.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의복은 전통과 서구 혹은 제국과 식민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이중으로 짓눌려 있는 여성들의 몸 혹은 자아를 암시하며, 그러한 이중적 억압을 야유하고 도발하기 위한 퍼포먼스의 소도구에 가깝다. 『해방촌 가는 길』(『문학예술』 57. 8.)의 몰락한 지주 가문의 딸인 기애는 풍요로운 제국에 기생하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기 꺼리는 한국의 전통과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야유의 표현이자 도발의 전략으로 의복, 즉 양장을 내세운다.

기애는 집안이 급격히 기울자 미군부대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한다. 양반가문에서 자란 그녀는 조오의 애인이 되지만 그가 본국으로 귀국명령을 받아 낙태를 하고 결국 “양공주”로 전락해간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의 계기는 의복에 관한 자의식과 결부되어 있다. 취직이 된 이래 늘 입고 다닌 흰브라우스와 진곤색 수우츠 탓에 자신의 별명이 ‘제비’로 부쳐진 것을 알고 수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검소는 곧 무교양”인 미군부대에서 양장 의복은 식민지의 가난한 하위계급 여성인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이지만 동방의 양반국가의 전통을 훼손하는 수치로 지목되면서 기애는 이중으로 식민화된다. 양반가의 안주인이었던 기애의 어머니는 빈민가에서 양공주인 딸에 의지해 연명하지만 그녀를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수치스러운 현실을 외면한다. 또한 전쟁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가난한 고아로, 상이군인으로 형편없이 전락한 근수는 기애에게서 순결한 모성을 기대하며 치유받고자 한다. 이렇듯 어머니와 근수 사이에서 이중으로 소외된 기애는 마치 항의하듯 스스로를 기괴하고 곱지러운 이방인 혹은 타자로 가시화한다. 기애는 의도적으로 요란한 양장 옷을 꺼내 입고, 담배를 피우며 공격하고 항의한다. 즉, 자신에 대한 환상을 껌으로써 어머니와 근수가 기애 자신과 현실을 바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근수는 자살하고, 기애의 어머니는 병적으로 종교에 몰입하는 것으로 그녀를 다시금 외면하고, 기애는 새 직장인 무역

회사에 다니며 새출발을 결심하지만 근수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말할 수 없는 죄책감 혹은 심리적 혼돈 속에서 미군 장교를 유혹해 동거를 하며 자기를 방기한다. 기애의 양장 의복은 탈식민 국가 안에서 소외된 여성의 비극적 처지만이 아니라 그녀를 이방인, 괴물로 내모는 사회에 대한 공격적인 욕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형편없이 전락한 자기를 야유하고면서도 “백번 팽개쳐 진땀자 꿈쩍도 하지 않을걸……”(338쪽)이라고 예감 혹은 결심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¹⁵⁾

강신재의 여성 인물들은 거울 앞에서 밥을 먹고 잔다는 댄디에 못지않게 치장을 위해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을뿐더러 자신의 의복 혹은 육체의 아름다움 앞에 희열을 느끼리만큼 미적 자의식이 강하다. 이렇듯 의복을 인물들의 자의식과 결부시키는 서술들은 대중소비사회의 도래를 예고하는 시대적 징후로서 당시 50년대가 시각적 상상력이 우세한 근대적 공간임을 암시한다. 50년대 거리의 댄디들이 지극히 근대적인 존재들이던 것은 내면지향성, 겸손, 침묵, 인격 등 전통 사회의 윤리적 덕목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의복은 단순히 신체의 보호막에 머물지 않으며, 자신의 육체 자체를 스펙타클로 만드는 것 혹은 자신의 특권과 우월성을 드러냄으로써 타인과 자신을 구별짓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값비싼 서양식 의복이나 화려한 한복으로 치장한 여성 댄디들은 스스로를 시각적 볼거리로 만들어 부를 과시하거나 검약의 미덕 위에 구축된 순응적 여성상에 맞서 가부장제 사회를 도발한다. 강신재의

15) 기애는 조오의 애인이 되고 임신을 하지만, 조오가 본국으로 귀국명령을 받자 낙태를 하며 결국 “양공주”로 전락해간다. 즉 기애는 육체의 훼손을 경험하며 한국적 근대의 시간을 통과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애의 이야기가 급격한 서구화와 문화변동에 따른 여성, 특히 하위계급 여성의 전락담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애는 민족주의 텍스트의 여성수난사 담화에서처럼 시대의 상처가 활취고 간 시대적 상징으로 정체화되지 않는다. 기애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여성이라기보다 이치적이고 냉소적이다.

여성들은 스스로의 육체를 감각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불거리로 삼는 유미주의자들이다.¹⁶⁾

이른바 ‘타락한 여성’들은 타인의 시선 앞에 치명적으로 상처입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야유하거나 ‘관용’하는 여유마저 보인다. 『바이바리코오트』(『문학예술』 56.3)의 숙희는 화려한 양장으로 치장한 자신을 향한 타인의 시선을 “쳐다 보고픈 사람은 쳐다 보면 좋은 것이다. 비웃고 싶은 사람은 비웃으면 되었고 부러운 사람은 부러워 하면 그만인 것이다”(268쪽)라고 맞받아친다. 그녀의 치장은 한편으로 이미지와 불거리로 존재하는 근대 여성의 위상, 즉 늘 시선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조건을 암시한다. 그러나 불거리가 된 여성이 종래의 시각이론에서와 같이 시각적 대상, 즉 여성의 무권력과 소외의 상징인 것은 아니다. 의복은 일종의 가면이고 유혹의 전략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여성은 무력하고 수동적인 사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보는 이를 통제하고 장악하기 때문이다. 숙희는 남편의 원망과 노여움의 시선을 마주하자 “허리를 흔드는 걸음걸이로 좁은 마당을 질러 그의 앞으로 닥아”서 “형태가 흩어지고 불룩한 앞가슴이 고혹적인 선을 과시하”는 유혹의 전략을 발휘해 남편을 누그러뜨린다. “나일론과 류우브를 속속들이 휘감은” 그녀의 아름답고 섹시한 육체는 일종의 여성적 권력의 도구이다. 그녀는 자신을 충청도 시골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유혹해 결국 그가 시골의 본가를 나와 도시로 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의복은 유혹의 전략을 통해 여성적 권력을 실현하는 매개이다.

숙희가 서구식 의복치장에 매혹된 것은 의복이 자아의 전환 혹은 변

16) 서정자, 『이미지로 짠 태피스트리-강신재의 글쓰기 방식』, 『한국어와 문화』 제3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8.2. 이 논문은 ‘의상시학’이라는 용어를 도입해 강신재의 여성작가로서의 글쓰기의 특징과 함의를 밝히고 있는데, 작가의 저작 전체를 아우르고 있을 만큼 의상의 위상과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경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외국계 회색 바이바리 코오트는 그의 몸에 썩 잘 어울린다고 하느니 보라도 차라리 어떤 멋진 사람을 하나 세로 만들어 놓 것 같은 느낌이었다”(284쪽)는 숙희가 생각이 암시하듯이 의복의 매혹은 혈연, 가족, 신분, 전통적 규범 등이 구축한 재래의 고정된 정체성을 변경가능한 것으로 인지케 한다. 신분에 따라 의복의 형태나 색깔, 옷감의 종류가 제한되었던 관습-법적 체제의 폐지 등 의복의 민주화는 계급의 철폐, 인간의 평등이라는 근대적 이념이 실현된 증거이다. 특히 남성의 서구식 복장이 문화화의 상징인데 여성의 양장이 “양공주”의 표식이 됨에 따라 여성의 경우 서양식 복식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것은 성별의 문화정치학의 남성중심성을 엿보게 한다. 『해결책』(『여성계』 56.8)에서 “양공주” 미라가 마치 자율성이 있는 해방된 여성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만삭의 임부지만 남편에게 학대 당하는 덕순이는 미라가 “칸나 꽃처럼 싱싱하게 살아있”다며 선망한다. 자율적이고 권력을 가진 “양공주”라는 상상력은 비록 작중인물의 시선이라 할지라도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환상이지만, 가부장제도 하의 여성의 소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소산이다.

강신제는 화려하고 고급한 의복에 대한 여성의 선망과 집착을 통해 권력에 대한 여성의 욕망을 보여준다. 여성과 소비주의의 결합이 단순히 일정한 형식의 남성적 권위를 공고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뿌리째 흔들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한다. 숙희는 “저혼자 제 힘으로 벌어들인 화장품이니 양복이니 또 사치스런 속옷들이니를 만져보고 헤아려 보고 하여가면서 넉넉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외국 잡지의 “가다로그”나 쇼윈도우의 진열 상품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녀는 라디오나 아이롱, 시계를 구매하는 것에서 말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상품은 주술처럼 그녀에게 힘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진다. 『야회』(『신태양』 54.11)는

두 명의 중산층 여성들이 X구락부의 파티를 가기 위해 옷을 고르고 머리를 매만지며 치장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파티에 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은 “홍분한 어조”를 감추지 못하거나 얼굴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밝아케 상기”된다. 다홍빛 모본단 치마, 분홍과 금 은으로 자잔한 꽃을 뿌린 청남빛 양단치마, 살구씨 모양으로 된 백금 테두리 안에 에메랄드가 박여 있는 조그만 것, 손이 적게 보이는 까만 가죽장갑, 다이야 반지와 백금 시계, 짙따랗고 새까만 툭파-코-트 등 이들은 에로틱한 열정인 양 사치품에 열광한다.

이렇듯 사치의 유희는 전후 여성들의 소비주의 풍조와 고위층의 사치와 비리 등 사회적 부정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치스러운 소비자인 그녀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것으로 알려진 특성들, 즉 의존성, 수동성, 종교적인 경건함, 가정적 내면성, 성적 순결, 모성적 양육 등에 도전하고 그것을 전복시킨다. 전후문학이 전쟁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모성으로서의 여성 표상에 매달렸던 것을 떠올리자면, 강신재 소설의 사치스러운 여성의 상상력은 이전 시대의 가치와 전통을 휩쓸어버리는 양풍-소비-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을 실증화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여성성 담론의 허위를 내과한다.

4. 관능적 섹슈얼리티와 “애브노멀”한 충동의 미학

강신재의 여성들은 언뜻 보기에 사랑에 목숨을 거는 순정파인 양 보인다. 이들은 전쟁이나 사망 등 불가항력적인 방해물이나 상대방의 배신으로 인해 사랑이 좌절되면 광기의 징후를 띠거나 심각하리만큼 무기력해진다. 그러나 그녀들을 지고지순한 순정녀로 부르기 어렵다. 사랑이 가정적 여성의 숭고한 도덕이거나 허여적인 여성성을 습득하는 젠더 규

범이 아니라, 개체로서의 자기 혹은 규율화 되지 않은 욕망의 표현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강신재 소설은 자아가 존재론적으로 리비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확신 위에 구축된 미적 세계다. 강신재의 여성들은, 도덕이나 정조에 얽매이기보다 이미 ‘감각적 쾌감’에 몰입하고 있는 육체적 주체다. 연애와 그것이 일깨우는 관능적 감각으로 스스로를 여성으로 주체화한 근대적 개인들인 것이다. 강신재 소설의 연애는 감각의 해방 혹은 폭발로부터 시작된다. 연애와 섹슈얼리티, 욕망이 결합하며 퇴폐적인 양상이 펼쳐진다. 50년대 연애담론이 한편으로 연애를 지극히 숭고한 것으로 이상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에티켓화함으로써 전후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규율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는 탈성화된 이상적인 여주인공의 등장과 연애 모티프가 애정 윤리에 대한 성찰의 형식으로 다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강신재 소설에서 애정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들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본능과 욕망에 사로잡혀 쾌락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위기에 몰아넣으리만큼 반사회적이다. 재건의 목소리가 드높았던 계몽의 시대, 이성의 권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녀들은 야성적 에너지로 충만하며 육체의 감각에 사로잡혀 세상을 도발하는 퇴폐적 유태주의자들이다.

『어떤 해체』(『현대문학』 56.3)의 시정이는 “뚜렷한 자각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바로 그 성적인 매력”에 끌려 “무엇을 체쳐 놓고라도 그를 독점하고 싶”어 아버지 회사의 운전수인 현구와 결혼을 한다. “두뇌로 판단할 겨를도 없을만치 자기의 감각에 의지할 수 있는 일을, 시정이는 청춘의 승리처럼도 치부하고 있”(10쪽)이었다는 서술이 암시하듯이 “교양이 거니 하는 덧부치기”들을 고려하는 대신 감각에 이끌려 결혼을 결정하리만큼 그녀는 열정적인 여성이다. 시정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역시 피난 중에 헤어진 남편의 안위보다도 그가 세 번이나 같은 소녀와 거리를 걸었다는 “불유쾌한 소문”이다. 이렇듯 강신재의 여성들은 정념에 사

로잡혀 있다. 『c항아화』(『협동』 51.1)는 혹독한 추위, 사나운 파도, 잿빛 하늘의 “몹시 춥고 쓸쓸한” 북녘 고장을 소설의 무대로 택해 정념이 자아내는 불가해한 고뇌를 광기의 이미지로 담아낸다. 작중인물들은 모두 광기의 징후를 떨 만큼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 “고귀한 넓은 이마, 새침하게 웃뜩한 코” “백합꽃처럼 아름다운” 용모에 보육학교를 나온 애정은 남편인 태호가 염병을 앓다 죽자 속설을 믿고 그를 정지 바다에 파묻고 부활을 기다리며, 고집사의 “머리 속이 이상하게 엉클리어 있는” 딸 혜숙은 사랑하는 이와 의 결합이 좌절된 후 알수없는 우수에 사로잡혀 바느질을 한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짓는 색색이 고운 저고리는 억눌린 정념을 암시한다. 『절벽』은 헌신적 사랑 속에서 행복한 죽음을 꿈꾸는 퇴폐적 낭만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렇듯 강신재의 여성들은 사랑-정념이 주는 고통 때문에 여성으로 살 것인가 여성을 버릴 것인가라는 갈등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중편소설 『감상지대』(『평화신문』 55.12-56.1)는 각각 감정과 이성을 대변하는 두 자매의 서로 다른 인생을 통해 사랑-정념에 대한 여성의 고뇌를 보여준다. 언니인 민희는 납치미망인으로 결혼 전 사랑하던 인섭의 아이 준수를 맡아 기른다. 그녀는 “납치되어간 자기 남편” 대신 역시 납치된 혼전의 애인 인섭을 그리워하며 준수에게 헌신하기에 모성적이기보다 관능적인 여인이다. 반면 동생 민영은 언니처럼 살지 않기 위해 미국 유학을 가 사회사업가가 되려 한다. 사랑이나 결혼보다 “건전하게 더 넓고 큰 것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의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민희가 관능적이고 감성적이라면, 민영은 금욕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상징한다. 자매를 중심으로 관능과 금욕, 결혼과 독신, 감성과 이성, 혼탁함과 정결함 등 이분법이 대립한다. 그러나 영일이 구애하면서 민영의 금욕주의는 흔들린다. 강신재 소설에서 사랑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내면과 정열이 표현되고, 가부장적 문화 규범 하에 구축된 모성적 여성성을 돌

파하는 지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강신재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들로 ‘악녀’들을 들 수 있다. 강신재의 여성들은 “애브노멀”하고 “코케이브”하다고 묘사된다. 이 단어는 대상이 주는 성적 관능의 기형성과 과잉성을 묘사하기 위해 빈번히 등장한다. 『포말』(『현대문학』 55.3), 『향연의 기록』(『여원』 55.8), 『표선생 수난기』(『여원』 57.3), 『제단』(『전망』 55.11), 『찬란한 은행나무』(『여성계』 56)의 여주인공들은 자신의 사랑-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 사회를 위협하리만큼 도착적이다. 이들 악녀들은 강신재 소설에서 부정적인 인물들로 제시된다. 『제단』의 순정이는 아무런 동정이나 가책 없이 타인들에게 고통과 파멸을 안겨주며 도덕적 가치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녀는 친구 명덕이의 가정을 파괴하고 명덕이의 남편이자 자신의 불륜의 애인을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죽음에 몰아넣는다. 『향연의 기록』의 언니 역시 아름다운 용모와 유희적 욕망으로 단정한 모범생인 약혼자 김정수를 결국 착란에 이르게 한다. 『표선생 수난기』의 표선생의 부인은 아들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선량한 대학교수 표선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들은 처벌받아 마땅한 악녀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처벌받는다면 그것은 이들이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름답지 않기 때문이다. 강신재는 섹슈얼리티나 관능, 사랑과 성욕에 관한 문제를 윤리의 측면이 아니라 미추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들이 부정적인 것은 욕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욕망을 탐욕스럽게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모 때문에 강신재 소설은 마치 가부장제 사회의 이상적 여성상을 옹호하고 보수적 가치관을 지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무분별한 탐욕이라는 점은 섬세하게 구분되어야 할 지점이다.

강신재 소설은 사악한 욕망의 여성들에 대한 혐오만이 아니라 매혹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중적이고 분열적이다. 악녀에 대한 환타지한 상

상력은 전후 사회적 통합이 강조되면서 미망인 혹은 매춘 여성들이 사회적 질서를 오염시키는 진원지로 지목되고 처벌되어온 시대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특히 한국전쟁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감성-감각이 기형적, 동물적으로 과잉된 여성 표상이 자주 발견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말』, 『향연의 기록』, 『표선생 수난기』, 『제단』, 『찬란한 은행나무』등에서 여성인물들은 공산당에 적극 가담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공산주의와 연루되어 있다. 한국 전쟁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에도 부정적인 인물을 공산주의자로 표상하는 수법은 작가가 반공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암시하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기실 이데올로기의 진위나 선악을 구분하는 데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듯 작품의 완성도를 해치는 미숙하고 작위적인 설정이 왜 필요했는가를 의아하게 만든다.

분명한 것은 『표선생 수난기』의 화자인 식모가 안주인의 불륜으로 훼손된 표선생 일가의 비극을 “六·二五의 기록의 첫마디이기도 한 동시에, 동란이 가지고 있는 뜻의 한 상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전쟁과 전후의 사회적 무질서 혹은 부조화 상황을 여성의 성적 일탈로 은유하는 담론의 관행을¹⁷⁾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코의 이론은 성욕을 근대문화와 대립시키지 않고 근대 문화의 기본적 범주로 제시한다. 근대성은 성적 이질성의 창시, 담론적 범주의 증식을 통한 성도착의 고취와 동일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련의 주변적 성욕을 병리화하면서도 그

17) 권명아는 1950년대는 “전쟁 후유증을 사회와 국가가 처리하는 시기”로서 “그 처리 과정이라는 것이 전쟁상태를 덮어버리는 과정인데, 그 덮어버리기는 한편 통합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이 모순적인 과정에서 배제되는 집단들이 전쟁의 유족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상이군인뿐만이 아니라 전쟁 미망인, 고아들, 그리고 매춘여성들이나 양공주들로 포장되어 있는 집단들”이라고 한 바 있다. 권명아, 김진기 대담, 박정애 사회, 『젠더의 시각으로 읽는 한국문학사: 50년대, 공적 기억의 장에서 지워진 ‘여성들’』, 『파라 21』, 2004년 가을호, 이수출판사, 2004.

것을 창조하는 등 사회적 정화를 피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여성의 성적 일탈에 따른 가계의 비극적 파탄은 전후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극도로 감시대상이 되어버린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며,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사회적 오염이 재현되고 정화되는 상징적 장이었음을 암시한다. 『향연의 기록』의 아름답고 관능적인 언니는 한국전쟁기에 마치 타락한 여자에 대한 처벌인 양 이성적이고 단정한 약혼자 현구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강신재의 악녀소설은 여성의 성욕을 처벌하는 사회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과 그러한 사회에 대한 반역의 욕망을 보여준다. 이러한 까닭에 악녀는 혐오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찬란한 은행나무』는 한국전쟁을 거세된 남성과 과잉성애화된 여성으로 은유하는 서사적 관습을 모방하면서 악녀로 표상된 여성들을 사회적 희생물인 양 제시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준구는 전쟁터에서 공산당에 의해 사형을 당하지만 운 좋게 시체구덩이에서 살아 돌아온 이후 도로를 건너지 못할만큼 겁쟁이가 되어버렸다. 이준구는 비록 성공한 사업가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전후 남성의 표상으로서 호텔에서 머물며 집과 가족을 갖는 것을 거부한다. 다만 그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소문이 좋지 않은 전쟁 미망인 백희와 사귀는데, 어느날 노을이 환기하는 고통스러운 기억 탓에 “공포와 극도의 경악” 상태에서 백희의 숨겨둔 애인이라고 간주한 젊은 남자를 백희의 프랑스식 이층주택에서 참혹하게 살해한다. 이준구의 변호사는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타락한 미망인 백희 때문이라며 이준구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이는 전쟁의 상흔과 사회적 무질서를 여성의 일탈적인 섹슈얼리티로 환원하려는 시대적 분위기를 암시한다.

그런데 이렇듯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포를 담아내는 한편으로 그것을 핏빛 노을 속에서 타오르는 ‘찬란한 은행나무’의 매혹적인 이미지로 표상된다. 특히 미망인 백희의 프랑스식 이층주택은 이미 전부터

세 명의 남자들이 불미스럽게 죽어간 흥가이지만, 집을 구하러 다니는 여성서술자는 이 집의 불길한 아름다움에 매혹된다. 이른바 착한 여자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악녀들에게 은밀히 매혹당한다는 것도 흔치 않은 설정이다. 『제단』과 『향연의 기록』은 공통적으로 성녀와 악녀를 표상하는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성녀가 악녀를 관찰하고 서술하는 구도를 취하는데, 성녀들은 악녀들의 동물성, 특히 “점액질”로 은유되는 관능의 섹슈얼리티에 매혹된다. 『제단』의 순정이는 동물적인 감각을 질게 풍기는 육욕적인 여성이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 형성되는 이 세상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불가결한 그 무엇을 순정이는 아마 남달리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정욕이니 성적매력이니 내지는 예술적인 감각이는 하는것말입니다”(회화, 55쪽), “순정이의 몸속에는 한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58쪽) 등의 서술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유부녀 순정은 주인공 명덕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친구인 명덕의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녀다. 그런데 명덕은 순정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아이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지언정 순정을 증오하지 않는다. 명덕에 따르면 기괴하며 촌스러운 용모에도 불구하고 순정이는 기묘한 매력을 뽐어내는 인물이다. 순정이 매혹시킨 것은 명덕이 남편만이 아니라 명덕 자신인 것이다. 명덕은 본능적인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끼며 순정에게 이끌려 다닌다. 순정이에 대한 명덕의 이끌림과 혐오는 자신의 억압된 욕망에 대한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다. 명덕이 목사인 아버지의 종교적 세계 속에서 자란 금욕주의적이고 모성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향연의 기록』에서 단정하고 냉철한 여동생 역시 “애브노말”한 언니에게서 ‘부조화’를 감지하지만, 언니의 아름다운 육체와 관능적인 연애 사건들을 예의주시함으로써 은닉된 욕망을 암시한다.

요부들은 여성이 지닌 두드러진 정서적 민감성과 도덕적 자질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적인 캐릭터들이다. 이 작품들은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러운 사랑이나 평등에 대한 어떠한 감상적인 신화도 거부하면서 에로티시즘과 권력, 열정과 지배 사이의 냉혹한 상호 관계를 확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들은 무심결에 드러나는 육체의 증상을 통해 욕망과 심리적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 규범에 대한 자발적인 거부를 의식적으로 수행한다. 그들은 억압된 소망을 비언어적 형식으로 일관성 없이 몸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탈적인 성욕을 미학적인 행위를 통해 자의식적으로 표현한다. 결국 강신재의 글쓰기는 인식하고 욕망하는 도착적 여성 주체를 제시하고 있다.¹⁸⁾

5. 결론을 대신하며

권명아에 의하면, 전후는 사회 통합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는 시기이다. 이런 강박은 사회 경계의 문란함에 대한 공포이고 이러한 공포와 강박이 여성이나 서발탄에 대한 극렬한 공포로 드러난다. 전후에 실제로 엄청난 미국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상반된 측면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의 경계를 강력하게 재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진다.¹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신재는 육체의 감각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스스로의 감각적 체험에 가장 큰 신뢰를 품는 여성들을 등장시킨다. 언어는 아버지의 법률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강신재는 로고스적 언어가 아니라 감각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붙들려 글을 쓴다.

18) 리타 펠스키, 285쪽.

19) 권명아, 김진기 대담, 박정애 사회, 『젠더의 시각으로 읽는 한국문학사: 50년대, 공적 기억의 장에서 지워진 '여성들』, 『파라 21』, 2004년 가을호, 이수출판사, 2004, 311쪽.

흥미로운 사실은 단편 창작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강신재가 60년대 중반부터 영면할 때까지 여러 편의 일간지나 잡지에 연재를 담당하면서 등 대중적 취향의 소설을 썼다는 것이다. 『신설』(64-65), 『유리의 덧』(68-69), 『레이디 서울』(66-67), 『사랑의 묘약』(70), 『밤의 무지개』(72년), 『불타는 구름』(78) 등 여러 편의 신문연재 소설은 불륜과 치정을 다룬 통속극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듯 대중소설작가로 변신한 것은 강신재만이 아니다. 1950년대는 한국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여성문인들이 집단적으로 출현한 시기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예외도 있지만) 출판시장의 확대와 함께 연재소설 창작에 뛰어들고, 연애소설이나 선정적인 대중소설을 쓰는 양상을 보인다. 비평계는 이들 여성작가들을 매스컴 문학, 에로 문학 작가군으로 분류하면서 주변화한다. 여성-대중성-상업성-하위문화라는 도식이 성립되어 간다. 이는 “여류작가”라는 차별적 지칭이 암시하듯이 남성문단의 배제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대중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던 내적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떠오른다. 강신재의 경우, 후기작으로 갈수록 요부가 등장하는 기괴하고 자극적인 연애소설 창작에 몰입한다. 이들 작품들은 문학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중문화의 하위문화적 전복성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의 부르주아 가정의 혼외정사, 폭력이나 가정 범죄 가정 영역을 성적 일탈이나 폭력과 연관시킴으로써 가부장적 근대화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강신재, 『회화』, 계몽사, 1958.
 _____, 『여정』, 중앙문화사, 1959.
 _____, 『양관』, 『단편선집』(강신재 문학전집 1), 삼익출판사, 1974.
 _____, 『파도/임진강의 민들레』(강신재대표작전집 2), 삼익출판사, 1974,
 _____, 『감상지대』, 『청춘의 불문율』, 여원사, 1960.

2. 단행본

-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174쪽.
 김주연, 『강신재론』, 『단편선집』(강신재 문학전집 1), 삼익출판사, 1974, 415쪽.
 김 현, 『감정의 점묘화가』, 『파도/임진강의 민들레』(강신재대표작전집 2), 삼익출판사, 1974, 412쪽
 염무웅, 『팬터마임의 미학-강신재론』, 『한국대표문체작가전집』, 서음출판사, 1978, 386쪽.
 Ritar Felski 저, 김영찬·심진경 지음,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311쪽.
 R.V.Johnson 저, 이상욱 역, 『심미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1979, 7쪽.

3. 논문 및 기타

- 권명아, 김진기 대담, 박정애 사회, 『젠더의 시각으로 읽는 한국문학사: 50년대, 공적 기억의 장에서 지워진 '여성들』, 『파라 21』, 2004년 가을호, 이수출판사, 2004, 296-330쪽.
 김복순, 『감각적 인식과 리얼리티의 문제-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265-291쪽.
 김수진, 『여성의복의 변천을 통해 본 전통과 근대의 젠더정치』, 『페미니즘연구』 제7권 2호(2007년 가을), (사)한국여성연구소, 2007, 281-320쪽.
 김옥동, 『아름다움의 종교: 유태주의의 개념과 본질』, 『서강인문논총』 제5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175-208쪽.

- 서정자, 『이미지로 짠 테피스트리-강신재의 글쓰기 방식』, 『한국어와 문화』 제3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8.2, 91-122쪽.
- 이배용,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모와 여성 의식: 1945-1948』, 『역사학보』 150, 역사학회, 1996, 159-214쪽.

Abstract

The writing of an aesthete and a desire of
female subordinate subject

- With the short story of beginning in Kang Sin-jae as a center -

Kim, Eun-ha

This research finds the meaning of an estheticism nature on the first stage of Kang Sin-jae's novel in which it is focused on appearance of female subject who to be sense in the course of national reconstruction following after and before liberation. The reason why the novel of Kang Sin-jae was isolated from the main literary world had a desire of woman who rejects "a vertically superiority, morally superiority" (Kim Hayn), it focuses on being used the way for writing to make being sense more than reason with the way which against to the order of symbolized world of moral, a law, a regulation and an ideal. Her novelistic personas are aesthetes in the point of judging beauty and ugly depending on not a regulation but her sense. Aestheticism is what one try to experience life passionately, to pursue about life is protecting a desire over a social regulation or insisting because they believes that the deepest degree of judging things are based on themselves, in other words, it is based on themselves who can feel, and this may get joined on a desire that violates formation. For that, aesthetes may shape forms of an arrogant hedonist or may be a decadent who against social order.

The writing of which Kang Sin-jae based on sensuously and trusts of sense is not anti age or not unreal in the point of which was not only fascinating of new sense which was incoming with

Europeanization and Modernization but also it was based on reality in which social fear appeared. It seizes the point that culture was appeared which has sensuously and consumption and city culture was aroused in a sudden change of history in which was liberation and after and before war, and that fear and horror in Korean society of after and before war expressed with female-sense as medium. Especially, in the course of which fear of social confusion was getting joined on an imperative idea about harmony, the group which was to be a symbol as a stranger, a monster, on the other words, as others is appeared the point of a female subordinate subject as a foreigners whore, a widow and city woman. It may watch for the point of that politics of gender in 50's, on the other words the body of female was engaging sharply politics between tradition and Western Europe, colonization and anti-colonization.

Key words : aesthete, sense, female, arrangements, clothes, consumption and vanity, modern subject

■ 본 논문은 10월 15일에 접수되어 11월 2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